

8/27/23

설교 제목: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에베소서 3 장 14-21 절

(엡 3:14)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엡 3:15)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엡 3:16)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엡 3: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엡 3: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절관주** 빌 3:12

(엡 3:19)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3: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엡 3: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서는 신학적 교리를 담고 있는 전반부(1-3 장)와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후반부(4-6 장)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사도 바울은 전반부에서 구원에 대한 교리를 개인적인 측면과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구원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수직적인 관계 회복입니다.

공동체적인 측면에서의 구원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회복입니다.

멀리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새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을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수평적인 관계 회복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아 교회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며 전반부를 마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교회로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성도의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열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표현하여 그 삶이 쉽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하고 그러기위해 능력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우리의 대장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통수권자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우리의 대장 하나님께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들어가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기도의 대상 (14-15 절), 기도의 내용 (16-19 절),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과 찬양 (20-21 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엡 3:14)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엡 3:15)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 (마 6:5)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 (마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 (마 6:7)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 (마 6:8)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 (마 6: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 (마 6: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 (마 6: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 (마 6: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 (마 6: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은 더 이상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통수권자 되심을 온전히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이름을 주셨으며 그것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음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인 동시에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나타내 보입니다.

(엡 3:16)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엡 3: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엡 3: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엡 3:19)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이 비워지고 삼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고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두 가지,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게 해 주실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속사람은 날로 썩어져 가는 겉사람과 대조되는 말로 우리의 영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세워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썩어 없어질 육신이 지배하는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 강건해야 진정한 성도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이것을 구한 것입니다.

겉사람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겉사람의 단장은 소박하게 하라고 합니다.

(딤후 2:9)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땀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딤후 2:10)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말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비결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온갖 세상의 유혹과 고난, 핍박들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 어려움에
당당하게 맞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세상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사람들 앞에 나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알기에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속에 항상 거주해 주시길
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터가 잘 굳어 있는지는 평소에는 모릅니다.

시련의 폭풍우가 몰아쳐야 그때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한 상태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터가 잘 굳어져 있었던 터라 이런 세상의 고난을 두렵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자신을 돌아보며 사랑 안에서 삶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고 하나님께 에베소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성도를 세상에서 강건하게 지키는 힘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과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저절로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자비와 긍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의 수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는 담대함을 넘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전히 최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충만하신 상태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설사 그같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언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라도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수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에베소 성도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엡 3: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엡 3: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엡 4: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엡 4: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엡 4: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내적 갈등을 이겨내고 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성회되어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 사람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 결국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